

# 구례군청 씨름단, 설날장사씨름대회 매화급·국화급 우승

선채림 매화장사·엄하진 국화장사 등 3체급 중 2체급 석권

김순호 구례군수 “훈련 전념토록 다각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구례군은 지난 1월 19일 ~ 20일 양일간 영암군에서 열린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에 출전하여 매화급·국화급에서 우승하여 최강자 자리에 올랐으며, 무궁화급 2위,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매화급에 출전한 구례군청 선채림 선수는 결승전에서 밀어치기와 발다리기술로 매화급 최강자 양윤서 선수를 2:1로 제압하며 생애 첫

장사에 등극하였다.

국화급 결승전에서는, 엄하진 선수는 되치기와 잡채기 기술을 사용하여 안산 시정 김다혜 선수를 모래판에 누이며 통산 11번째 국화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또한, 첫째 날 열린 단체전에서 구례군은 3위에 오르는 한편, 무궁화급에서도 2위에 오른 등 전 체급 결승전 진출을 통해 여자씨름

발상지로서 위상 제고 및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김순호 군수는 올해 첫 대회에 참가하여 2체급 석권과, 단체전 3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 설날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큰 기쁨과 함께 구례군을 빛내주어 고맙다"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청 씨름단은 2011년 창단 이래 여자 씨름 발상지로서 신규 선수 육성 및 재능 기부에 힘을 쏟아 오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 차민수, 개인 통산 4번째 한라장사 등극...설날장사씨름대회 정상 올라

결승전서 박민교 3-0으로 꺾고 정상



영암=조대호기자

차민수(영암군민속씨름단)가 개인 통산 4번째 한라장사에 올랐다.

차민수는 23일 전남 영암군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105kg이하) 결승전에서 박민교(용인특례시청)를 3-0으로 꺾었다.

차민수는 8강에서 이효진(수원특례시청), 4강에서 김보경(문경새재씨름단)을 꺾고 결승에 올랐다.

차민수는 결승전 첫 번째 판에서 밀어치기로 기선을 제압했다.

두 번째 판에서 들배지기로 이긴 차민수는 세 번째 판에서 안다리를 성공시키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 최정만, 설날씨름 금강급 우승...통산 16번째 장사

2018년 이후 5년 만에 설날대회 우승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이 흡인 영암군에서 금강장사(90kg 이하)에 등극했다.

최정만은 22일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 결승전(5판3선승제)에서 문형석(수원특례시청)을 3-2로 제압하며 황스트로 피를 들어 올렸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설날대회 우승으로, 개인 통산 16번째 장사 타이틀이다.

8강에서 임태혁(수원특례시청)을 2-0으로 누른 최정만은, 준결승전에서는 같은팀 소속인 최영원(영암군민속씨름단)을 2-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선 문형석을 만나 접전 끝에 승리했다. 첫판을 문형석에게 내준 최정만은 두 번째 판에서 뿌러치기로 균형을 맞췄다.

세 번째 판에서 문형석이 오금당기기로 다시 앞서자, 네 번째 판에서 최정만이 안다리걸기로 2-2를 만들었다.



영암=조대호기자

그리고 마지막 판에서 최정만이 들배지기로 문형석을 꺾었다.

## 손흥민, 3호 도움에도 아쉬운 평가...“영향 없었다”

토트넘, 풀럼에 1-0 승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이 시즌 3번째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연패 탈출과 함께 동료 해리 케인의 대기록을 도왔지만 현지 평가는 박했다.

손흥민은 24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벌어진 풀럼과의 2022-2023시즌 EPL 21라운드에서 전반 추가시간 케인의 선제골을 도우며 토트넘의 1-0 승리에 일조했다.

손흥민의 리그 3번째 도움으로 이번 시즌 리그에서 4골 3도움을 기록하게 됐다.

손흥민과 케인이 합작한 통산 44번째 골로 이날은 의미가 특히 컸다.

케인이 토트넘에서 통산 266번째 골을 신고, 1961년부터 1970년까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266골을 터뜨린 레전드 지미 그리브스의 구단 역대 최다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



이다.

그러나 후반 31분 히사롤리송과 교체된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손흥민에 대해 "많이 경합하고,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케인의 기록적인 골을 도왔지만 경기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며 평점 5를 부여했다.

이번 페리시치, 히사롤리송과 함께 팀 내에서 가장 낮은 평점이다. 결승골의 주인공 케인은 평점 8을 받았다.

## 1군 캠프 함께하는 '새내기들'...경쟁은 시작됐다

한화 김서현·KIA 윤영철·SSG 이로운 등 1군 스프링캠프 합류

1군 진입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뚫었다. 스프링캠프 기회를 잡은 신인들이 생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 무대에서 경쟁하던 신인들이 스프링캠프 명단에 포함되는 건 일찍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대선배들과 함께하는 스프링캠프의 결과에 따라 일부는 개막부터 중용될 수도 있다.

2023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한화 이글스에 지명된 김서현은 형님들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2라운드 전체 11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내야수 문현빈도 1군 캠프에 같이 간다.

김서현은 서울고 시절부터 시속 150km대의 강속구를 뿌리며 눈길을 모은 투수다. 일찌감치 즉시전력감으로 평가받은 그는 프로 입단 직후 전지훈련 초대장까지 받아 1군 입성의 꿈을 더 키우게 됐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투수 윤영철이 올해 신인 중 유일하게 스프링캠프 명단에 포함됐다. 윤영철은 김서현에 이어 전체 2순위로 호명된 유망주다.

KIA는 고교 시절 많은 공을 던진 윤영철이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 말 마무리 훈련에 제외하는 등 특급 신인 관리에 더욱

공을 들었다. 스프링캠프에서는 1군 코칭스태프 지도 하에 유망주 키우기가 적극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일궈낸 SSG 랜더스는 무려 4명의 2023 신인을 캠프에 합류시켰다. 투수 이로운과 송영진, 내야수 김민준, 외야수 김진민이 미국 플로리다 캠프에서 1군을 향한 경쟁을 벌인다.

순위로 최상단을 차지하며 뛰어난 전력을 확인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뒤를 이을 새 얼굴들 발굴에도 공을 들이는 셈이다.

이승엽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두산 베어스에서는 포수 윤준호가 신인 중 유일하게 스프링캠프 행운을 안았다.

윤준호는 이 감독이 사령탑에 오르기 전 야구 예능프로그램 '최강 야구'에 함께 출연했던 인연이 있다. 이 감독은 "이번 스프링캠프에 투수들이 많이 가게 돼 포수가 많이 필요하다"며 윤준호의 캠프 합류 배경을 설명하고는 "최강 야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군급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경험은 윤준호의 성장과 빠른 프로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키움 히어로즈는 미국과 대만으로 이원화해 스프링캠프를 진행하면서 새 얼굴들을 대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김서현. (사진 = 한화 이글스 제공)

데려간다.

미국 캠프에서는 투수 김건희와 외야수 송재선이 구슬땀을 흘리고 대만에서는 내야수 이승원, 우승원, 이호열, 서우신과 포수 박성빈, 변현성이 담글질에 들어간다.

LG 트윈스에서는 투수 박명근, NC 다이노스에서는 투수 신영우, 이준호가 1군 캠프에서 프로 첫 시즌을 준비한다.



## 韓남자하키, 세계 7위 아르헨 잡고 13년 만에 월드컵 8강 진출 '쾌거'

한국 남자하키가 국제하키연맹(FIH) 월드컵에서 세계랭킹 7위의 강호 아르헨티나를 꺾고 13년 만에 8강에 진출했다.

신석교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3일(현지시간) 인도 부바네스war에서 열린 제15회 FIH 남자 월드컵 8강 진출 결정전에서 아르헨티나와 5-5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페널티 슈아웃에서 극적인 3-2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최종순위 6위에 올랐던 2010년 대회 이후 13년 만에 8강에 들게 됐다.

세계랭킹 7위이자 2014년 월드컵 3위를 차지했던 강호 아르헨티나를 잡은 한국은 목표로 했던 8강을 달성했다.

다음 상대는 세계 3위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직전 대회인 2018년 준우승국이다. 오는 25일 4강 진출을 다룬다.

한국은 경기 시작 7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2쿼터에서 2골씩 주고받으며 2-3으로 전반을 마친 한국은 3쿼터에서도 1골씩 주고받으며 3-4, 1골 차로 추격을 이었다.

4쿼터 초반 실점하며 3-5로 패색이 짙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장종현, 이남용(이상 성남시청)이 내리 2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페널티 슈아웃으로 끌고가는데 성공했다.

한국은 마지막 승부에서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며 3골을 넣어 2골에 그친 아르헨티나를 따돌렸다.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장종현은 대한하키협회회를 통해 "우리는 승리를 거둔 팀으로서 정말 행복하며, 8강전에서 훨씬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 英매체 “셀틱, 조규성 저울질에 오현규로 방향 전환”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명문 셀틱이 조규성의 저울질 탓에 오현규 영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영국 스포츠포츠는 23일(한국시간) "셀틱이 이적료 250만파운드(약 38억원)에 수원삼성 블루윙스 스트라이커 오현규를 영입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21세로 한국 국가대표인 오현규는 구두 합의를 마쳤으며 며칠 안에 이적으로 확정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스포츠는 조규성 영입을 노리던 셀틱이 오현규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셀틱은 오현규의 국가대표팀 동료인 조규성에게 영입을 제안했지만 조규성이 세부 조건을 저울질하면서 전북현대와 셀틱 간 이적 협상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스